

수정사, 잊혀진 영광의 흔적

고려시대 불교는 제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정사는 제주의 3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큰 위세를 떨쳤다. 지금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 버린 수정사의 흔적을 만나보자.



우형서로 | 제주시 외도1동 400-1 ~ 제주시 외도1동 640-1(약 0.9km)

절물1길 | 제주시 외도1동 429-1 ~ 제주시 외도1동 476-4(약 0.4km)

우정로 | 제주시 외도1동 405-7 ~ 제주시 외도1동 644-3(약 1km)

통물길 | 제주시 외도1동 371-1 ~ 제주시 외도1동 173-1(약 1.7km)

수정길 | 제주시 외도1동 405-1 ~ 제주시 외도1동 416-8(약 0.1km)

도근내길 | 제주시 외도2동 233-1 ~ 제주시 내도동 311-1(약 1km)

조공포길 | 제주시 외도1동 436-10 ~ 제주시 외도1동 560-2(약 0.9km)

월대1길 | 제주시 외도2동 360-1 ~ 제주시 외도2동 319-1(약 0.1km)

계명길 | 제주시 외도1동 1652-5 ~ 제주시 외도1동 2241-2(약 0.6km)

연대마을길 | 제주시 외도2동 1930 ~ 제주시 외도2동 2018-1(약 0.8km)

배한이길 | 제주시 외도1동 2381 ~ 제주시 외도1동 1148-2(약 1.1km)

사메기길 | 제주시 외도1동 758-7 ~ 제주시 외도1동 22(약 1.8km)

제시리길 | 제주시 외도1동 843-2 ~ 제주시 외도1동 1047(약 1.1km)

우령서로/절물1길/우정로/통물길/수정길 | 수정사



수정사터

우령서로는 외도에 있는 우령이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바닷가와 가까이에 있는 마을인 외도(外都)는 마을 옆을 흐르는 도근천의 바깥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들은 제주에서 드물게 물이 흐르는 하천인 도근천 주위에 여러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우령이마을도 그 중에 하나다. ‘우령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소를 풀어 키웠던 ‘쇠앗동산’을 한자로 우령리(牛嶺里)라고 했다는 설과 옛 지도에 나타나는 우라촌(紆羅村)이 우령이마을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우령이마을 북쪽 **절물1길**이 지나는 곳에는 우령이마을과 이웃했던 절물마을이 있었다. 절에서 사용했던 물이 난다는 뜻의 절물마을에는 고려시대 유명한 사찰인 수정사가 있었다. 외도의 변화가를 가로지르는 **우정로**는 우령이마을과 절물마을을 지나는데 우령이마을의 ‘우’와 절물마을에 있었던 수정사의 ‘정’을 합쳐 지은 이름이다.

수정사는 서귀포에 있던 법화사, 삼양에 있던 원당사와 더불어 고려시대 제주의 3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노비를 130명이나 거느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물마을은 바로 이 수정사에서 사용하던 물이 있던 곳이었다. 물이 잘 나는 지역이라는 뜻의 **통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샘물을 만날 수 있다. 이 물이 수정사에서 사용했던 고망물이라고 한다. 고망물은 1987년에 한국자연보호협회와 경향신문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의 100대 명수에 꼽히기도 했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만큼 사찰들의 위세가 대단했다. 제주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수정사가 있었을 때는 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하지만 그런 영광도 영원하지는 못했다. 조선 중기에 제주에 어사로 방문했던 김상헌이 우연히 수정사에 들르고 “초가 두어 칸이 바람과 비를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조선이 들어서면서 수정사의 위세가 점점 약해져 폐허나 다름없을 정도로 변하고 말았던 것 같다. 오늘날 수정사가 있던 곳은 교회와 놀이터 등이 들어서 있고, 1970년대에 새로 조성된 수정동이란 마을과 수정길이란 이름으로나마 그 흔적을 전하고 있다.

외도에는 고려 때 벼슬을 지낸 서재공 이미가 제주에 유배되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저항하다 제주에 유배된 이미는 함께 유배된 김만희, 한천과 더불어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삼절신이라 불렸다. 특히 이미는 그의 형이 안무사로 제주를 찾아와 함께 돌아가자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제주에 남아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썼다고 전해진다.

도근내길 / 조공포길 / 월대1길 | 월대

도근내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을 안을 유유히 흐르는 도근천을 만난다. 도근천은 옛날 조공한 공물을 실어 나르던 포구가 있다는 뜻에서 조공천이라 불리기도 하고, 인근에 수정사가 있다는 뜻에서 수정천이라 불리기도 했다. 어느 이름이 먼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공천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와중에 도근천으로 변화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나라에 바치는 조공물이 이곳을 통해 드나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연유에서 도근내길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공포길**이라고 했다.



도근천

월대1길이 있는 외도초등학교 북쪽에는 월대마을도 있었다. 도근천은 옛날부터 많은 선비들이 찾아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이곳에는 월대(月臺)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밤이 되면 물 위에 비치는 아름다운 달빛을 즐기는 누대라는 뜻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백호 임제가 제주를 찾았을 때 이곳에 들러 친구들과 함께 경치를 즐겼다고하고, 제주에 유배를 왔던 박영효 역시 제주의 명사들과 이곳을 찾아 시회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제명길 / 연대마을길 | 옛 마을길

외도의 도로에는 옛날에 있었던 마을의 이름이나 사람들이 부르던 지명들을 살린 이름들이 있다. 마을 이름과 연관된 길에는 앞서 언급한 월대나 절물 이외에도 **제명길**과 **연대마을길**이 있다. **제명길**이 지나는 계명동은 새벽에 닭이 크게 울면서 아침이 오는 것을 주위

에 알려주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연대마을길**은 바다를 감시하던 조부연대가 있었던 연대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의미한다.

배한이길 / 사메기길 / 제시리길 | 옛 지명의 흔적

우렁이마을 남서쪽에는 저수지의 물을 이용해 제주에서는 드물게 논농사를 지었던 곳을 배한이라 불렀다. **배한이길**은 이 지역을 지나는 길이다. 이 밖에도 사메기동산이라 불리던 곳을 지나는 **사메기길**과 제시리동산이라 불리던 곳을 지나는 **제시리길**이 있어 옛 사람들이 부르던 지명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